

# 광주·전남 상장사 '역대급 실적'...순이익 6배 폭증

작년 매출 107조·영업이익 141% ↑  
지역 매출 89% 한전이 상승세 주도  
코스피 15개사 순이익 전년비 467% ↑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이 지난 한 해 역대급 경영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8조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다른 지역 기업들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025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지역 상장사 36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107조5천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4.03%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수익성이다. 영업이익은 9조 5천471억원으로 140.86% (5조 5천83억원) 늘었고, 순이익은 지난 2024년 1조 3천506억원에서 지난해 8조 467억원을 기록하며 무려 495.74% (6배 ↑)라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전력이 주도했다. 지역 매출의 약 88.8%를 차지하는 한전은 지난해 매출액 95조5천362억원, 영업이익 8조5천4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69.68% 급증했다.

한전 이외 지역 상장사들의 실적도 돋보였다.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액은 12조 222억원 (2.33% ↑), 영업이익은 1조 717억원 (26.35% ↑)으로 집계되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코스피 15개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66.65% 증가하며 지역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한전을 비롯 금호건설, 화천기공 등의 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코스닥 21개사의 매출액은 오이솔루션, 강동씨엔엘 등의 매출액 증가 영향으로 0.85%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역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상장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88%로 전년(8.83%) 대비 5.04%p 상승했으며,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7.48%를 기록해 전년(1.31%) 대비 6.17%p 올랐다. 분석 대상 36개사 중 23개사가 흑자를 달성했다. 이중 DSR제강 등 5사는 흑자전환했다. /임재만 기자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134.66포인트(2.21%)오른 6,226.05로, 코스닥 지수는 10.54포인트(0.91%)오른 1,162.9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이 1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선정에 따른 인증식을 개최한 가운데 광주은행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브랜드파워 9년 연속 1위 인증식 개최

KMAC 주관 지방은행 부문  
지역밀착형·영업 차별화 호평

광주은행은 1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선정에 따른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송광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그룹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브랜드 경쟁력 확보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성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올해로 28년째를 맞은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 제도다.

광주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브랜드 이미지, 이용 가능성, 선호도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018년 이후 9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인증식은 일회성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수상을 통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 신뢰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역밀착형 금융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 고객 중심 서비스가 소비자 인식 속에 긍정적으로

로 자리 잡으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신뢰가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9년 연속 1위라는 뜻깊은 성과는 지역민과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은행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광주은행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 신용회복위-광주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 예방 협약

상담·사례관리·신용회복 등 통합 도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16일 "전남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및 금융취약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채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통해 재학대 예방과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담·사례관리·금융지원이 연계

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 및 경제적 위기 노인과 그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상담·사례관리·신용회복 지원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증진 등이다.

김용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금융취약 노인의 채무 문제 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 LH광주전남본부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공유냉장고에 기부해 ESG 실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전남 지역상생-더불어(double-up) 사회 공헌 활동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LH 봉사단원은 제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보루빵 반죽부터 포장까지 빵을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여러 직원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빵은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LH 빛가람5단지 공유냉장고에 전달했다.

LH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빵만들기 행사를 분기별 개최하고 직원들이 만든 빵을 임대주택 내 공유냉장고에 기부해 ESG 경영을 지



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LH 이시은 봉사단원은 "주변 이웃에게 따뜻함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었다"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빵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